"무구정경 신라 경주제작 확실"

"제3장 3행 파자 '口丿'는 '照' 측천무후의 姓 피휘하지 않았으므로 중국 낙양제작설은 잘못됐다"

- 김성수교수 주장 -

한·중·일 삼국 가운데 인쇄술 기원국은 어디인가?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국보 제126호, 이하 무구정경)〉의 간행국은 한국인가 중국인가? 또 〈무구정경〉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목판인쇄도서로 공인될 수 있을까?

세계 최고(最古) 목판인쇄물로 추정되는 〈무구정경〉을 7년간 연구하며 '인쇄술 한국기원론'을 뒷받침할 사료와 자료를 수집·연구해온 김성수 교수(청주대 문헌정보학)가 19·20일 연세대 주최 '세계인쇄문화의 기원'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판지싱 교수(과학원 자연과학사연구소), 이시즈카 하루미치 교수(북해도대학)등 중국과 일본의 대표 학자들과 '인쇄술 기원국'을 가리는 진검 승부를 자처해 화제다.

"〈무구정경〉 제3장 3행 마지막 파자(破字)인 '口丿'(사진 참조)는 '照'(조)자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무구정경〉이 중국에서 7세기 초 제작됐다면, 여제 측천무후의 성(姓)을 사용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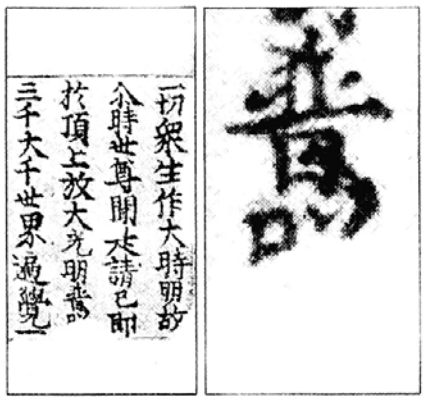
김교수에 따르면 3행에 기록된 '大光明普口丿'는 고려대장경·초조대장경에서도 발견되는 '큰 광명을 넓게 비춘다'라는 글귀. 다시 말해 파자는 '비춘다'는 의미로, 북위시대에 사용된 '照'(조)자가 명백하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예법이 기록문헌에서 황제의 성과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피휘법'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무구정경〉이 702년 중국 낙양에서 제작된 뒤 신라로 건너갔다는 중국 측의 주장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수 교수

1966년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경〉은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문헌으로, 그동안 한국과 중국은 인쇄 장소를 놓고 '경주설' '낙양설'로 대립해 왔다. 〈무구정경〉이 인쇄된 나라가 '인쇄술 기원국'일 가능성이 짙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770년에 인쇄됐다는 기록이 있는 〈백만탑다라니〉가 최고(最古)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세계 서지학계에서는 〈무구정경〉 보다 시대가 떨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심포지엄을 주최한 연세대 국학연구원(원장 남기심)은 "△제작 연대 △서체 △종이 △인쇄술 등 다각적인 논쟁이 한·중·일 학자들에 의해 진행됐지만 결국 기원국을 가리지 못했다"며 "〈무구정경〉의 파자 '口丿'로 인쇄 기원국 논쟁에 쐐기를 박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가탑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제3장 첫부분. 3행 하단의 口丿는 照(조)의 이체자인 '照'로 밝혀졌다.

'照'의 武周字

照

'照'(無垢淨經)

결국 김교수의 주장이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공증되면 〈무구정경〉이 7세기 초 신라 경주에서 제작됐다는게 확실해 진다.

김성수 교수는 "이 연구는 천혜봉·오옥진 선생님 그리고 여러 선배 학자들과의 공동 성과물"이라고 말했다.

또 "심포지엄이 끝나는 대로 〈무구정경〉의 세계기록문화유산(Memory of the World) 등재를 위해 불국사, 국립박물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관학계 등과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9~20일 연세대 상남경영관에서 열리는 '세계인쇄문화의 기원에 관한 국제학술심포지엄'에는 한국측에서 김성수교수 외에 박지선교수(용인대)가 '한국고대종이의 유물', 김수천교수(원광대)가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미의식'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초의선사 추모공연 茶와 음악의 만남

24·25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서

차(茶)와 음악의 만남. 청량한 가야금 소리를 들으며 보기만 해도 마음이 맑아지는 푸른 빛의 차(茶)를 대하면 어떤 느낌일까. 한국 차문화의 중흥조라 불리는 다성(茶聖) 초의선사(1786~1866)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음악회가 마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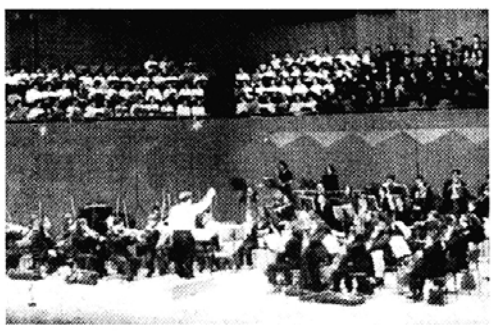
차를 주제로 다악공연을 펼치고 있는 한국창작음악연구회(회장 김정수)가 지난해에 이어 24·25일 양일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두번째 무대로 마련한 '그 푸른 날들의 찻잔, 초의(草衣)'(연출 홍원기)가 바로 그것. 김영동(前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 이건용(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씨 등 다섯명의 작곡가들이 모여 초의선사를 각기 다른 빛깔의 음악으로 연출한 이번 행사에서는 모두 차마시는 예식을 무대에서 실연한다.

국립국악원 박일훈 연구실장이 작곡한 '동다송'을 연주할때는 초일향다회가 헌공다례를 보여주고 초의선사가 40여년간 주석했던 일지암을 조명한 '일지암'(김영동곡) 연주에서는 일지암스님인 중허스님이 출연해 차를 즐기던 초의선사의 풍모를 재현해 보여준다. 또 다악(茶樂)곡인 '일, 물, 빛'(이건용곡)과 '초당'(이종구곡) 등이 연주되는 동안에는 차문화협회의 규방다례, 향기를 찾는 사람들의 차의 여신춤 등도 곁들여진다.

◇차향 가득한 '초일향' 다실에서 가야금 연주를 하고있다.

이외에도 이번 행사에서는 초의선사와 다연을 맺었던 다산 정약용을 비롯 추사 김정희, 소치 허유 등을 되새기는 음악과 함께 헌다무, 묵화, 시낭송 등도 함께 펼쳐진다.

다악(茶樂) 공연인 '그 푸른 …'은 30일 오후7시30분 해남 대흥사에서 열리는 초의문화제 행사에서도 공연될 예정이다. (02)2261-3456 김주일 기자



◇26일 미술제를 시작으로 음악제·영화제·학술제가 11월2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진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음악제.

종교화합의 새천년 준비

제3회 종교예술제 26일부터 예술의전당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등 각 종교간의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제3회 대한민국 종교예술제'가 26일 오후5시 주요 종교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미술제를 시작으로 음악제·영화제·학술제 등이 11월2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진다.

미술제는 한국화를 비롯 동양화, 서양화 회화와 조각, 서예 등 110여점이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전시된다. 주관하는 음악제는 26일 오후7시30분부터 예술의 전당 음악당 콘서트홀에서 동양상불과 단국대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춰 진행된다. 이번 공연에는 메조소프라노 김청자, 소프라노 이경애씨, 가야금병창 윤소인씨 등이 출연해 '그리운 금강산' '진도아리랑' 등을 열창하며 3백여명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이 '가고파' '청산에 살리라' 등을 부른다.

매일 오후3시와 오후7시30분 2차례에 걸쳐 상영하는 영화제 기간에는 불교경화인 박철수감독의 '오세암'과 임권택감독의 '개벽' 등이 한국영상자료원 시사실에서 상영된다. 학술세미나는 11월2일 오후2시 '전통사상과 한국종교' '새천년 새문화 창조와 종교인의 역할' 등을 주제로 열린다.

(02)739-1830

선승이 그린 진경산수 '감상'

적산스님 첫 작품전 27일부터 공평아트센터

산행을 하며 자연과의 묵시적인 대화를 남몰래 속삭여온 선승이 그린 '진경산수'를 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된다.

진경의 상(像)을 옮기려는 욕심조차 버린 선승의 예술세계를 추구해온 적산스님(인천 보각선원)이 27일부터 11월2일까지 공평아트센터에서 첫 작품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에서 전산스님은 '소승폭포' '청산벌곡' '상념의 뿌리' 등 100여점의 대작과 20호 크기의 30여점등 한국의 여름과 가을 그리고 산사를 소재로 그린 수묵채색화를 선보인다.

적산스님은 이들 작품을 통해 20년간 독학으로 완성해 온 원형적 조형언어로, 오랫동안 친숙해온 작품처럼 정감이 가고 시정이 솟는 진경세계를 보여줄 예정이다. 모두 현장에서 사생하여 완성한 진경산수들이지만 그림과 매치된 이미지나 메타포를 설정하여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명제를 붙이고 있는 것이 기발하고 흥미롭다. 특히 ㄱ의 완벽에 가까운 화면의 공간분할과 구성과 설채(設彩), 또 섬세한면서도 생생한 필선은 원숙의 경지에 가 있는 적산스님의 예술세계를 발견케 한다.

◇적산스님作 토굴.

이번 전시회에서는 달마상 그리고 서예로 완성한 병풍과 현판 10여 점도 감상할 수 있다.

적산스님은 "그림을 그리는 작화(作畵)가 바로 수도와 기도요, 자신을 완성하는 적공(積功)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02)733-9512 오종욱 기자

2000년 '이달의 문화인물' 선정

문화부, 5월인물에 진감국사

◇진감국사진영. 쌍계사 소장.

문화관광부는 신라 고승 진감국사(774~850)를 비롯 '2000년 이달의 문화인물' 12명을 선정·발표했다.

5월의 문화인물인 진감국사는 신라말 고승으로 불교음악인 범패를 최초로 도입한 스님. 전주 금마(지금의 익산)에서 774년 태어난 스님은 804년 당나라 신감대사를 만나 계를 받았다. 그 후 귀국하여 지리산 옥천사에 주석하며 불법을 펼쳤고, 850년 쌍계사에서 입적했다. 스님의 부도비인 대공탑비(국보 제47호)가 쌍계사에 남아있다.

이외에도 독립운동가 남궁억(1월), 최초 여류화가 나혜석(2월), 실학자 김육(3월), 유학자 서경덕(4월), 근대 음악가 하규일(6월), 한학자 정인보(7월), 독립운동가 김좌진(8월), 참여파 시인 김수영(9월), 국어학자 유희(10월), 궁중무용가 김창하(11월), 근대 화가 장승업(12월) 등이 각각 선정됐다.

문화관광부는 선정된 문화인물의 업적을 재조명하기 위해 99년 10월부터 12월까지 문화인물별 선양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도 문화인물달력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부터 해당인물과 관련된 학회·기념사업회·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추모행사 등 각종 기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 신

백담사 거리시화전

강원도 인제 백담사에 있는 만해 한용운 기념관 앞마당에서 16일~24일 '거리시화전'이 열린다.

거리문화제위원회(위원장 김신향)가 주최하는 이 시화전에는 미당 서정주씨를 비롯해 민족문학작가회의 회장 신경림씨, 윤종혁·박남권·오정진씨 등 1백 여명의 시인이 작품을 전시한다.

거리문화제위원회는 인제에서 활동중인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지난해 9월 발족, 시화전을 개최해왔다. (0365)461-3437

금산사서 열린음악회

개산 140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열고 있는 김제 금산사(주지 도영)는 개산대제 사전행사로 22일 오후 7시 금산사 경내에서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열린음악회는 KBS-TV에서 31일 오후 6시 40분 방영된다.

(0658)548~4440.

청광화백 달마도(大,小)

불교카렌다전문제작업체
가야기획
서울·종로구 견지동 110-42 청송B/D201호
제작문의 전화(02)732-2461~2 팩스(02)732-2462
카렌다 가맹점및 주문사원 모집중

365일 불심으로 생활합니다.
불심 가득한 원고와 질좋은 제품이 귀 사찰의 포교활동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야불교달력
*** 품질만족 · 가격만족 · 서비스만족 ***

연화의향기(大,小)

북한의명찰(大,小)

심향(大,小)

불리심(大,小)

저희 가야기획은 불교카렌다 전문 제작업체로서 귀사찰의 이미지에 부합된 다양한 원고사용과 불자님의 취향을 다방면으로 검토한 적절한 규격등 타 제품과의 차별화에 주력해 왔습니다. 높으신 안목으로 사용된 원고의 작품수준과 가야 제품의 질을 확인 하시고 선택 하십시요.

팔상도(大)

한국의마애불(大)

부처님의성지(大)

용(大)

한국의탑(小)

동자요람(小)

가까운 판매 가맹점(불교용품점)에서 주문 하시면 편리합니다.
■서울(견지동)길상원(02)722-4435,동일불교사 (02)722-9195,불서보급사(02)732-2829,불교서적사(02)732-8086,제일표구사(02)735-0918,연화사(02)733-7609,(강동)성인만물(02)487-8834,(강서)강서만물(02)604-7766,(구로)세운만물(02)864-1961,(탑심리)대국불교전시관(02)2246-3471,(방화동)청진만물(02)661-3261,(상계동)동원만물(02)3391-4780,상계만물(02)936-0669,(제기동)경동불교(02)965-8276,(중랑)승강불교(02)496-3778,(동답동)옹궁불교(02)474-4466■부산 고려불교예술원(051)807-6842,부산불교전시관(051)647-7393,동방불교(051)464-1941,반야원(051)632-1470,관음불교(051)807-6265,불광불교사(051)525-7450,종합불교사(051)816-2926,해동불교사(051)337-6386 ■인천,경기(인천)극동만물사(032)765-0413,태극만물사(032)883-1339,현대만물사(032)762-9381,(부평)부평만물사(032)512-8877,종로만물사(032)516-8434,(강화)강화만물(032)933-0647,(김포)김포만물사(0341)982-0013,(구리)구리만물(0346)563-7554,(동두천)동두천만물(0351)865-6284,(부천)부천만물(032)656-0365,아리랑만물사(032)666-2227,원미불교사(032)656-8562,(성남)중앙고려만물(0342)751-0811,민속만물(0342)722-3369,(송탄)송탄만물(0333)662-0731,팔달만물(0333)665-6627,(수원)역전만물사(0331)247-7884,(안산)민속만물(0345)495-4848,(안성)관음불교사(0334)676-4828,(안양)일심불교사(0343)447-5685,(일산)금촌만물(0348)943-1363,(의정부)삼보불교사(0351)856-1020,의정부불교사(0351)842-8671,(용인)성원불교만물(0335)336-0337,(평택)원아불교사(0333)657-2300,(하남)신장만물사(0347)793-6139
■강원도 (강릉)동해불교(0391)643-4058,(삼척)보문불교(0397)574-3971,(속초)광영불교(0392)631-7907,(원주)성심불교사(0371)742-3745,(태백)보성만물(0395)552-5323,(홍천)마하불교사(0366)434-8446 ■충북(청주)청주만물(0431)258-4226,(음성)백호만물(0446)883-6724,(제천)제천불교(0443-)645-7517■대전,충남 도솔천불교(042)585-2278,대구승복사(042)254-8776,백제불교(042)253-9907,보문불교서점(042)257-0161,(공주)백제불교(0416)855-5621,(공천)광천만물(0451)641-2073,(논산)법탑불교(0461)735-4045,연화불교(0461)736-4163,(보령)광성만물(0452)935-5175,(부여)부여반야만물(0463)835-2733,(서산)서산만물(0455)665-5136,(온양)민속만물(0418)545-4868,(조치원)현우불교(0415)865-0549,(천안)고려불교(0417)562-5952,충남불교(0417)557-3360,(청양)연희부만물(0454)943-5968,(홍성)홍성만물(0451)633-0762 ■대구,경북 대일불교(053)426-7486,보광불기사(053)254-4496,보현불기사(053)252-7005,봉은승복사(053)421-5451,부용당(053)321-4612,보광불기사(053)254-4496,(구미)대중불교문화원(0546)455-1068,(경주)불교서점(0561)749-1580,(김천)대산불교(0547)432-5863,(포항)만덕불교(0562)241-2402 ■경남(김해)금강불교사(0525)337-5170,일광불교사(0525)325-0780,(밀양)밀양불교사(0527)355-5742,부용불교사(0527)352-3756,(마산)마산불교전시관(0551)255-6678,(진해)진해불교사(0553)545-6320,(거제)고현불교사(0558)633-2327 ■전북 (전주)조화불교사(0652)284-4396,(군산)원각만물(0654)446-1638,(익산)이리유기(0653)855-3883 ■광주,전남 김천유기(062)363-5219,만연유기(062)226-7786,호남혼구사(062)366-4917,(순천)대원불교(0661)743-6755,(여수)이화불교사(0662)643-7533 ■제주도 불교종합전시관(064)722-4878